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편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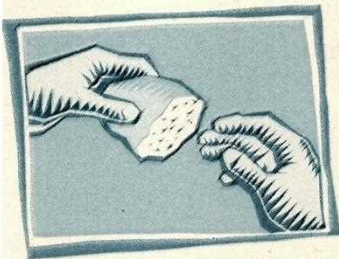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엡 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2001년도 제4차 성찬식 (1부에서 5부까지)



'예수의 만찬'

이번 주일 낮 예배는 1부에서 5부까지 성찬예배로 드리지게 된다. 성찬 예배는 주께서 제정하시고 베푸시는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받는 영광스러운 '예수의 만찬'이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해하시라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또 보내给你们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26:26-29).

'성찬'에 대한 소고

"성찬은 언약의 식사이다. 이것은 옛 언약, 곧 율월절 만찬을 기념하는 중에 예수님이 의하여 제정된 새 언약의 만찬이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율월절 음식을 잡수셨다. 비록 하나님인 잔치의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쏟아졌을 때에만 죄인들이 그분의 전치상으로 나아올 수 있었다."

성찬은 우연적 사건이거나 인간에 의해 스스로 고안된 것이 아니다. 성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적인 예식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은 결코 참여할 수 없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행한 만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는 또드 열매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성찬은 최후의 잔치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나타내며, 피 대속의 피를 통하여 잔치가 준비되고 손님들이 잔치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성찬에는 인간들의 추구하기 때문 목적이 담겨있지 않다. 성찬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기하고 기다리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참여할 수 없다.

"대속의 죽음은 율월절의 핵심이었다. 이스라엘은 초대성 대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분설주에 발랐다(출 12:13). 율월절을 위하여 구별되는 양들은 화성으로 드

릴 양과 같이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 했다(출 12:5, 레 22:17-25).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이 구속된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쓴다(벧전 1:19). 그리스도의 찢긴 살과 흘린 피는 희생이다. 이는 그가 기꺼운 사람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죄인을 대신하여 드러진 하나님의 어린양이기 때문이다"(벧전 2:24).

성찬의 핵심은 피흘림과 사죄의 은사이다. 범죄한 인간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의 피흘림은 인간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며, 그의 희생은 인간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의 보혈과 고난의 의미를 깨달는 죄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식탁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의 성례에서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분의 사역을 확증하며, 우리의 믿음에 인을 쳐서서 새 언약의 인을 받도록 하신다. 삼위와 이름으로 주시는 새 계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분의 가족이라는 회원권을 표시하는 것처럼, 성찬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시한다. 새례는 가림의 성례이다. 성찬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누리는 지속적인 교통의 성례이다.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의 공동 식사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관속으로 새로운 인부이다. 그러므로 성찬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남녀노소와 빈부구 구별되거나 차별되는 자 없으며, 모두가 한 식탁에서 동일하게 먹고 마시는 가장 광범하고 가장 화평한 공동체이다.

(E.P. 클라루의 '교회 신 상애 해설')

2001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

총신장학회에서서는 2001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전반기에 선발되었던 장학생들 중에서 후반기에 재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서류 접수: 7월 3일(화) ~ 7월 22일(주), 4시 50분까지(저녁 7시 전야 예배 전까지)

면 접: 7월 28일(토) 면접 및 서류심사(대학생 대학원생만)

수 련 회: 8월 2일(목) ~ 8월 3일(금), 총신 기도원에서 실시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국으로 문의(552-8200, 40471,473)

신학 칼럼

인간의 기원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일간의 창조사역의 마지막 날 인간창조가 이루어졌으며 인간창조 이전의 창조는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는 엄연히 구별하나, 다른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고유한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피조물 가운데서 구별된 존엄이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이는 창조시부터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지음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특별 계획에 의해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된 것이나, 인간은 특히 다른 존재와는 달리 삼위 하나님의 영속한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창 1:26). 또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모두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으며 자체의 고유형태를 지니게 되었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창 1:27) 창조됨으로써 그 고유의 모델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되었으나, 인간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창 2:7) 그리고 하와를 '이담의 갈뎃대'를 취함(창 2:22) 만물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은 흙으로 창조되어 단순히 육체적 생명만을 가지나(창 2:19), 인간만은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아울러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방법이 사용된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를 거부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진화론과 유물론의, 도생론 같은 주장들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각종 및 설리의 교리와도 위배되며 또 논리적으로도 상호 모순이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학설들은 상상적인 추론을 멀리하고, 오직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광 형(목사, 6교구지도)

고(故) 이창업 은퇴장로 장례식 "죽음 없는 곳"(계 21:1~4)



세백부터 가라비 내렸던 지난 수요일(27일) 9시, 본당 앞뜰에서 고(故) 이창업 은퇴장로의 장례식이 '당회장'으로 치러졌다.

"죽음 없는 곳" - 헤어지는 슬픔이 있었지만,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빛나는 집,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람이 없으며 애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새 예루살렘, 그 영광스러운 곳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오.

"만남이 있는 해리집" - 애가 끝나자 비가 뚝뚝. 그리고 곧 천부의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음을 되새기며 장례 차량은 밝은 교회당 뜰 앞을 떠나갔다. "이창업 장로님, 안녕히 가십시오. 천국에서 다시 뵈겠습니다!"

7월 위임목사 설교

일시	예배	본문	제목
7월 1일	2·3·5부	마 26:26-29	주의 만찬
7월 8일	3·5부	왕상 10:1	스바여왕의 방문
7월 15일	1·3·4부	호 10:12	여호와를 잊을 때
7월 22일	3·5부	마 23:23	그의 능력
7월 29일	2·3·5부	사 54:7-9	죄는 분노와 곧 분노

7월 정기당회

(4일) 수요일 예배 후, 당회실

7월 기도원 담당

이홍성 목사(교구위원회 지도)

Queen Sheba's visit

(1 Kings 10:1)

“Now when the queen of Sheba heard about the fame of Solomon concerning the name of the LORD, she came to test him with difficult questions.”

The Queen of Sheba, ruler of the Sabaeans in the southern part of Arabia, traveled 1,200 miles (1,930 km) on camelback to visit King Solomon. She had heard about the fame of Solomon concerning the name of the Lord, and she came to test him with difficult questions (v. 1). She brought with her many, many treasures and gifts. Her visitation and concern about the name of the Lord is amazing! The distance, time, and dangers she endured to hear and see God's message is inspiring. Jesus even said of her, “The Queen of the South will rise up with this generation at the judgment and will condemn it, because she ca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hear the wisdom of Solomon; and behold, something greater than Solomon is here” (Mt. 12:42). God gave her the authority to judge the people who rejected Him at the time of Jesus' earthly ministry because of her decision to go to Jerusalem “from the ends of the earth” just to hear the wisdom of Solomon. She acknowledged the superiority of Solomon's wisdom, whereas the Pharisees and scribes didn't even recognize that something greater than Solomon, the kingdom of God, was before them.

Queen Sheba was searching for truth and happiness. She had a softened heart, unlike most people who have hearts of stone. She wanted to see and hear God's message through Solomon, and was willing to take a dangerous trip in order to do so. Jesus Christ is greater in wisdom than Solomon. He knows God because God is His Father, and He holds all the treasures of wisdom. When we come to Jesus Christ with our doubts,

problems, and questions everything is solved. Not only that, but we receive the wisdom of heaven.

Let's look more closely at Sheba and her desire to learn of the fame of Solomon, for if we want to know Christ we, too, have to become His disciple. She threw lots of questions at Solomon and all her questions were answered. Nothing was hidden from Solomon which he did not explain to her (v. 3). Amen. There was no question to difficult for him. If you think you are short of wisdom, ask the Lord. In our lives we have a lot of questions, a lot of problems, and all of them can be solved if we come to Jesus. Queen Sheba's questions were high level, meaning they required more than human wisdom to be answered. Her questions concerned the name of the Lord, and she received wisdom through Solomon's godly answers. His godly wisdom solved all her questions. Think about Jesus Christ. He is the Mediator between God and all humans. He has the answers to all the complex and paradoxical questions of life.

The questions Queen Sheba posed to Solomon were hard. Perhaps she asked him how humans can be righteous before the Lord? Maybe she asked him what it means to be saved by faith or how a person can be made righteousness without their own effort? Possibly she wanted to know how God knows everything and knowing that all people are sinners how can they become His children? And it's likely that she also wanted to know how sin could be washed away and people made as pure as snow. Perhaps she even asked if it was really true that humans

would be able to see God one day? Surely she had many different and difficult questions. Solomon gave her all the answers through God's blessing of wisdom on him. And we can be certain that Jesus will give us all we need to know because in Hi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Col. 2:3). Amen. God's mystery is Christ Himself. He is the one who reveals God to man, and in Him is everything we need.

Let's go directly to Jesus with our questions. How can we come to Jesus Christ? How can we ask hard questions of Him? How is He going to answer us? By His Word, His Spirit, and His providence. Come and see for yourself. Nathanael once asked Philip, “Can any good thing come out of Nazareth?”, and Philip said to him, “Come and see” (Jn. 1:46). If you don't come, you can't get an answer. Why don't you come to Jesus Christ? He came to this earth to save sinners, to save you. If you don't come to Jesus how are you going to get all the answers you need to survive this hard life? How are you going to change your terrible and depressed status to happiness and a glorious life? How are you going to become a born again Christian?

Sheba's visit to Jerusalem is a wonderful example for us to follow. She made a great decision to co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hear about the fame of Solomon concerning the name of the Lord. I'm asking you to come to Jesus and ask Him all the things you need to know. You don't have to go that far, right, now sitting in His temple, His house. Come and see. 



김 성 관 목사

스바 여왕의 방문

(왕상 10:1)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지혜에 대한 갈급함

아라비아의 남부 지역에 있는 스바(아라비아의 옛 왕국)의 통치자였던 여왕은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 낙타의 등을 타고 1,930 Km 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그녀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에 대해 들었고,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1절). 그녀는 많은 보배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가 여호와와 이름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는 아주 먼 거리와 오랜 시간,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듣고 보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먼 훗날 예수께서 그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시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 12:42). 하나님은 예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을 심판할 권세를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예루살렘에 올 것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히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루살렘까지 마나 먼 길을 찾아왔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솔로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혜에 대하여 은유함

스바 여왕은 진리와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왕은 들쳐들 곧 마음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말씀에 대해 은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 보고 듣기를 원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위험한 여행도 감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지혜의 보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심과 문제와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뿐 아니라 천국의 지혜까지 받게 됩니다.

게 됩니다.

지혜를 지속적으로 추구함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뛰어난 지혜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 좀 더 관찰해 봅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면 우리도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물었고, 솔로몬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려워하지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3절). 아멘!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어려운 질문이란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지혜가 부족한 것 같으면 주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께 나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의 질문은 인간의 지혜 이상을 요구하는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왕의 질문은 여호와와 이름에 대한 것이었으며, 여왕은 솔로몬의 경건한 대답을 통해 지혜를 얻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경건한 지혜는 스바 여왕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인간 사이에 계신 중보자입니다. 그분은 인생에 있어서 모든 복잡하고 모순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스바 여왕의 정의(稱義)에 대한 물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던졌던 질문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솔로몬에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인간이 행위 없이 의로워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았을지 모릅니다. 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지,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죄인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왕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며, 어떻게 사람이 눈처럼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질문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왕은 심지어 인간이 언젠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여왕은 어렵고도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솔

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을 통해 모든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예수께서 주시리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골 2:3).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분이며 그 안에는 우리의 필요 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의 왕이 계심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난해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또한 예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그분은 계시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나다나엘이 한번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와 보라”(요 1:46). 만약 여러분께서 주께 묻지 않으면 답을 찾을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분은 죄인된 여러분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께 나오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해답들을 어디서 얻으시겠습니까? 급격하고 침체된 상황을 기쁨과 영광의 삶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참된 지혜의 왕이 계신 곳

스바 여왕의 예루살렘 방문은 우리가 본받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녀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기 위해 굳은 결심으로 땅 끝에서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께 나와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분께 간구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바 여왕처럼 그렇게 멀리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참된 지혜의 왕께서는 바로 여기 그분의 성전에 앉아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

LMTC수련회를 마치고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도!

손진도 (LMTC 훈련생)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후시 함께 갈 사람들이 오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대기 차장을 남겨두고,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한 후 본당 지하에서 우리는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에 참가하면서 이것 또한 기도의 훈련이라 생각했지요.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잠든 채 자들처럼 저 역시 다음날 아침까지 잠만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 식사를 마치고 1층 예배실에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 각자가 한 마음이 되는 듯 깊은 기도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성령님에 안전한 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순교자 기념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으로 향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며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각기 다양한 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성교에 대한 비전을 꿈꾸며 오도록 벌써 오래 전부터 인도하셨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산리 순교자 기념관과 제암리 기념관을 참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군의 잔인한 무력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어간 사람들의 사건을 보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르며 의롭게 사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부르셨음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기에 환란 중에 두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가기를 바라 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온지 천국갈 수 없잖아요

축호전도를 다녀와서

이소현 (원사, 1교구)

지난 23일(토) 1교구에서는 삼성동으로 축호전도를 나갔다. 53명이 참석해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한 시간 예배하고 기도한 후 전도지와 후지 선물을 갖고 삼성동에서 두 시간 남짓 전도하며 여러 명의 태선자를 볼 수 있었다. 이 전도를 앞두고 6월 2일부터 16일까지 교구모임 후 기도회를 가졌으며 6월 18일부터 22일까지는 다섯 개 전도지 회원들이 목사님을 시작으로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했고, 목사님께서는 전도 지역과 교안을 마련하시어 전도대를 역적으로 훈련시켰다.

선교의 소명 속에서 이십여 년 살아온 나는 방송선교, 선교행정, 현재는 신학대학에서의 상담활동을 통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날은 삼성동에서 일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선교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동참했다. '선교'라 하면 대개 지리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생각하지만, 선교의 주요 대상은 영토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선교라고 믿는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자녀로 선택됨을 특권으로만 알고, 영적 기득권 속에 머물러 자신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기 쉽지만 '선택은 특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섬김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말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선택의 섬김으로 용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선교현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새 명의 태선자를 잉태하였다.

최근의 사회문제 중 가정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태선자들의 갈등도 모두 가정문제에서 애초부터 심정으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 모두 가정 형편 상 무신론자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편해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 마음 속에서 절대자의 음성을 듣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죄가 많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기는 하다"

동등의 그들 곁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므로 태선자를 비롯하여 그 날 전도 대상자를 품고 쉬지않고 기도할 것이다.

세계 선교지 정보-7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Uganda)

땅이 비옥하여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리는 나라 우간다는 좋은 토양과 기후로 한 해에 두 번을 수확할 수 있다.



일부다처제와 순예에 대한 도덕의식이 없는 무분별한 성관계로, 1960년에는 국민의 25%-30%가 에이즈에 감염됐다.



우간다 정부는 1970년대부터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여



그러나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요즈음은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에볼라 바이러스의 의사까지 쓰러지게 하고 있다.



유능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해하고 추방하여 교회를 수탈이 파파했다.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면서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80만의 고이를 만든 전쟁보다 더 무서운 병마가 나라 전체를 휩쓸고 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성공회를 중심으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대인의 독자 기간에 추방당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대인의 독자 정부가 들어서 이후, 경제가 파탄되고, 기근과 살육으로 약 200만명이 사망했다.



우리는 이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고 일부다처제를 버리며 주님의 은혜로 병마가 물러나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충현교회 추은희 평신도 선교사 (우간다) 기도제목

* 추은희를 통해 보내는 선교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충현교인들이 됩시다.

1. 믿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단하고 말하는 믿음의 은사를 주소서
2. 사역에 성령님의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여 주소서
3. (나를 위해) 우간다 땅에 만연한 부정, 부패 그리고 인구의 70%가 에이즈 그리고 말라리아로 죽음을 위협 속에 절망적인 그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의사가 있기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깨끗한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많이 보내 주시도록 기도하자.
4. (나를 위해) 70년대는 기독교인들에게 심한 핍박의 기간이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수교 교단의 활동이 금지되고, 많은 교회와 단체가 파괴되었으며,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을 잃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신자가 새롭게 헌신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대한 용서, 기독교 인권의 회복, 부족주의, 명목주의에 대항을 위하여 기도하자.

조(선교회출신사)민(후) 부는 성경기독전반에서 반해 오

오늘의 찬송

주 예수 해변서 (284장)

내 마음의 묵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

정미순 (집사, 7교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상생 욕구가 끊어질 때,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나의 요구가 없어지고, 마음이 텅될 때, 이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충만함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 질을 맛보았습니다.

건강하여 씩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또 주의 일도 많이 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도 채 이리 오랫동안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섬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나오 하려금 이러한 욕구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내게 주신 환경, 부족한 나의 가족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의 삶 속에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뜻은 단지 하루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이사를 주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뜻이 보아심을 만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뜻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욕구를 말씀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님 만나될 때 무고롭게 않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세속적인 가지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탐만 마음 속에 충만히 거하시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의 감격 만림이나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현실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여전히 응답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생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천국을 발견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사랑하는 주여, 주가 빗길에서 떠돌 때였던 것같이

생명의 떡을 떼어 나에게 주소서

주여 성경을 초월하여 나 당신을 찾아나이다.

오, 삶이 계산 말로써이며, 내 영 당신을 찾아 갑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임정연' 성도를 소개합니다

고향은 김천, 부산에서 40년을 살다가 결혼한 지 1년 반 되는 아들 내외(월정훈, 심순덕 두분 모두 중등3부 교사)따라 서울로 이사오게 되었다. 30년 동안 아들이 다녔는데 며느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충현교회에 와서 일주일마다 4번이나 각종 예배와 노인학교 나오게 되는 데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왜 진작 못 믿었는데 기쁘고, 내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이시다. 새가족부에서 학습 받았을 때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공부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감사할 마음만 있다.

'차영숙' 성도를 소개합니다

전공이 음악이며, 아들은 음악 프로듀서라고 한다. 김현자 권사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불교를 믿었기에 혼자서 독학하던 자신의 말을 기도하듯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메로를 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2001년부터는 제사를 주두예배로 드리게 되었다. 새가족부의 성경 강습과 성경 빨리 찾기 대회에서 마음같이 잘 외워지지도 않고 빨리 찾기 못해 속상했다. 교구에서 대심방 못받은 것이 많이 섭섭했다. (아마 교구 사정으로 날짜 변경되었는데 직장에 미리 약속했기에 변경된 날짜에 심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다라고 많이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한순정 (새가족부 통신원)

나를 바친 주의 십자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연숙 (집사, 14교구)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리"(송 3:17).

오래 전 말씀을 읽던 중 이 구절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리고 아팠는지 그 때의 감동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다.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런 신은 없고 또 만약 있다면 내가 섬기는 신과 같은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 했었다. 그 때로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때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으로 잘 아시기에 화를 내다 내시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애대개 불러주시는 것이다.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부모의 심정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조금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에 세상에 오직 나만 남아 있다는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또 나를 많이 사랑하시며 그 기쁨이 넘쳐서 나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신다고 하신다. 나에게 대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은 이 돌대고 원수였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이었다. 2001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큰 소리 치며 하나님을 조롱했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다. 그 사랑이 넘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었다. 이제 내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무릎 앞에서 때로는 재물을 버리고 기도할 것을 부리는 아이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문패가 달린 집에서 살게 된 나는 이제 그 문을 다닐 때마다 우리 집이 바로 여기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모든 자식이지만 바라보는 것 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친구들아, 예수님 믿자!

김민혜 (유년부 6과 6반)

나는 전도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해요. 선물을 받고
싫어서가 아니라 유년부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나는 학교 친구들 또
언니 오빠들 하니까
교우들을 다 전도하고
싶어요. 이유는 친구들이
지옥에 갈까봐 한사요.
지옥은 정말 고통스럽고
내 친한 친구들이 지옥에
가는 건 너무 싫어요.
만약 내 친구 1명이 지옥에
간다면 내 친구 1명이 지옥에

지옥이면 내가 너무 슬플 거예요.
전도해야 예수님이 기뻐하
시죠. 예수님 믿어서 우리와
살아 있는 데 유년부 보우개
아주 저는 친구들이 예수님
믿어서 같이 천국 가는 것이
좋아요. "친구들아! 예수님
믿자! 그래서 같이 천국 가
자!"



나는 전도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물을 받고 싫어서가 아니라, 유년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나는 학교 친구들 또 언니, 오빠들 아니 학교 애들을 다 전도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친구들이 지옥에 갈까봐 겁나서요. 지옥은 정말 고통스럽고요. 내 친한 친구들이 지옥에 가는 건 너무 싫어요. 만약 내 친구 한 명이라도 지옥이면 내가 너무 슬플 거예요. 전도를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 있는데 우리도 보답을 해야죠. 저는 친구들이 예수님 믿어서 같이 천국 가는 것이 좋아요.

"친구들아, 예수님 믿자 그래서 같이 천국가자"

우리의 하나님

황금별 (소년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고마우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박요한 (소년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화내실 때는
내가 나쁜 짓 할 때 벌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하면 칭찬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를 변혁시키는 방법

박경배 (소년부 교사)

"교회의 변역을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능력을 누리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변역을 위해 애쓰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변혁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정당과 다르고 이 세상 권력파도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수단을 통해서만 변혁할 수 없다. 먼저, 믿는 자들 각자가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그러면 교회는 의도하지 않아도 변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랑이심을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깊은 믿음이 높이를 철저히 추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사람들은 열정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사실상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대주교 요한네스는 연초종교개혁 전도를 하러 갈 때마다 그리고 소년부에서 봉사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잘못을 위 굴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일지, 어느 순간부터 복음보다는 교회를, 말씀보다는 사랑을 나누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진리의 샘

이사야(Isaiah)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에 패배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영적인 죄 등, 총체적으로 죄에 빠졌음을 모음을 정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국가에 대한 죄악들도 정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택한 백성들에 대한 회복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공책에 이러한 내용들을 분류하여 기록하면서 읽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대 왕들은 '돗이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 1:1). 그러므로 열왕기서·역대기서에 나타난 각각의 왕에 대한 기록을 함께 정리하면서 읽으신다면, 이사야서를 더욱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에는 이사야가 '네 가지 영역에 대해 예언'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사야 당시에 관한 예언으로, 그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인데,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시기에 이 예언은 더욱 분명해집니다(사 39:6).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이사야 후반부(40장-66장)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마지막 정점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것,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예언의 종류를 분류하여 기록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각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 다가지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의 죄악에서 구원, 바벨론 포로생활에서의 구원, 정자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구원, 장차 새 왕국이 서면서 땅이 묶임에서 벗어나는 구원, 그리고 고난 받는 메시아를 통한 죄와 심판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이것 역시 공책에 정리하면서 읽으신다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구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하 목사·출판국 지도)

나의 그리스도의 만나



인듯 스치거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만남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진다. 어떤 만남은 기쁨과 즐거움, 안식과 위안을 주지만 어떤 만남은 아픔과 갈등, 괴로움과 상처만을 남겨 주기도 한다. 그래서 만나서 좋은 사람만 선택해 만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사랑' 즉 미우나 고우나 만나고 사랑해야 하기에 흔히 이종교가 되곤 한다. 괴로워도 만나야 한다는 사실과 싫어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 이중고다.

그 해 귀나사님의 만남도 징조가 좋지 않았다. 연세드신 분의 단기선교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이중고를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육체적으로는 모든 막노동은 그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과, 정신적으로는 이른 새벽에 드리는 동시에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사여부를 품포히 체크해 드려야 하는 세심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잘 해도 본인이 못 하면 버릇없는 아이가 되기 십상이었다. 그런 배경 아래서 나는 그분을 대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역할이 너무 많다는 사실과 육체적 피곤함으로 정신적 세심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분이 무엇을 마시고 싶어하시는지 묻은 여파까지 배려해드리기 보다는 내가 일상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사랑이 아닌 형식적 배려가 되었다. 그런 내가 마음대로 한대 귀나사님은 달랐다.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기도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단기선교가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만일 어떤 일이나 목상사건에 빠진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셨고 격려의 말을 잊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느날 그 귀나사님은 홀연히 새로운 나라로 떠나셨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안고... 떠나기 전날 필통 안에 예쁜 목걸이를 넣어 주신 귀나사님의 손을 붙잡고 서운한 마음을 달래며 함께 기도했다.

귀나사님의 만남을 통해, 주님 안에서 만남은 선택할 수 없지만, 만남의 결과는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분은 나의 것만 골라 하는 나를 위해 미운 대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 만남에 생명을 부여하셨다. 그런 끝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말이다. 예수님은 인간과의 만남을 사랑으로 결단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묵상하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만남에도 사랑을 선택할 것을 예수님 안에서 결단해본다.

(염정심 기자)

교 회 소 식

모임

1. 장로 협의회 개최
일시: 2일(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의 화요일예배
일시: 3일(화) 새벽기도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감사위원회 회의
일시: 오늘 16:00
장소: 교육관 208호(감사위원회실)
4. 경찰전도회 회의
일시: 8일(다)요일 15:00
장소: 배려가침
5. 아이돌전도회 회의
일시: 5일(목) 11:00
장소: 영아부실
6. 안수집사의 화요일예배
일시: 오늘 15:30
장소: 유아부실
7. 권사 1회 회의

일시: 4일(수) 15:00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남녀전도회

1. 베드로 1회 회의
일시: 7일(토) 19:00
장소: 동문산실(사무부동)
2. 베드로 15회 회의
일시: 8일(토)요일 15:00
장소: 배려가침
3. 베드로 14회 회의
일시: 8일(다)요일 15:00
장소: 배려가침
4. 베드로 15회 회의
일시: 8일(다)요일 15:00
장소: 배려가침
5. 베드로 15회 회의
일시: 8일(다)요일 15:00
장소: 배려가침
6. 베드로 15회 회의
일시: 8일(다)요일 15:00
장소: 배려가침
7. 베드로 15회 회의
일시: 8일(다)요일 15:00
장소: 배려가침
8. 베드로 15회 회의
일시: 8일(다)요일 15:00
장소: 배려가침
9. 베드로 15회 회의
일시: 8일(다)요일 15:00
장소: 배려가침
10. 베드로 15회 회의
일시: 8일(다)요일 15:00
장소: 배려가침

- 장소: 영아부실
6. 투디아 3회 회의
일시: 6일(금) 11:00
장소: 영아부실
 7. 투디아 7회 회의
일시: 오늘 15:00
장소: 아람
 8. 마리아 3회 회의
일시: 6일(금) 11:00
장소: 교육관 109호

별세

1. 김대해 성도
(장성복 부친, 이안순 김사 시부, 7교주 종남1구) / 6월 21일 별세, 6월 23일 장례
2. 박옥성 타교로
(박주한 대교로 부친, 이경현 권사 시부, 11교주 동이촌2구) / 6월 22일 별

세, 6월 25일 장례

3. 김갑이 권사

(최주근 김사의 모친, 홍재경 김사의 시모, 5교주 양계1구) / 6월 27일 별세, 6월 29일 장례

결혼

1. 마리스 한스 군(15교주)과 송영현 양(송주호 김사, 이문구 권사의 딸, 15교주) / 7월(토) 13:00 장례
2. 박영규 군(박희광 장로, 최귀련 권사의 아들, 유당교)과 박희성 양(박희태 안수집사, 서영남 권사의 딸, 2교주) / 7월(토) 14:00 복자

충현중보의장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고, 목사님을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절절한 통로로 사용하시게 하소서.
2. 김성관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교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4. 충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기독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6. 충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장년2부 여름 수련회

일시: 7월 2일 - 3일
장소: 충현기도원

선교기도회

일시: 12일(목) 18:00
장소: 만나눔
대상: 2001 여름 단기선교 참가자 전원, 외산부 교사

스리랑카 단기선교사 모집

피습예정일: 2001년 8월말경
서류마감일: 7월29일까지
선교사들은 단기선교로 선교사 지원사(조경양)를 선교위원회에서 받아 구비서류를 제출함
지역: 본교의 동쪽 지역으로서 정규 LMTC교육을 받은 자(장로LMTC는 자격이 되지 않음)
특히 어린이 사역에 경험이나 달란트가 있으면 선별된 단기선교사는 훈련 후 파송함.

남녀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남녀전도회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남녀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감사기간: 7월 중(주말)
2. 대상기간: 2001년 1월-6월
3. 장 소: 전도위원회실(교육관1층)
4. 준비서류: 시산표 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 동정, 사업계획 등

경찰전도회 여성중단
전양전도 사역자 모집

대상: 소프라노 2명,
메조소프라노 1명, 알토 1명
문의: 경찰전도회 사무실
(이연실 집사 017-713-0501)

영아부 교사 모집

영아부는 0세부터 3세까지의 아이와 영아, 아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며 영아들의 기쁨으로 교육하는 부서로서 가정예배를 중요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꼭 오셔서 영아들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9시, 11시(세교관 103호)

교정전도회 교사 모집

8월 6일부터 10일까지 초선에 있는 신장보통신학교(준전신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기도와 영감으로 준비하여 교사로 봉사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문의: 교정전도회 사무실(전207), 박영덕 권사

탁아부 예능과 교사 모집

- 2과 1명(08:30-10:30)
- 3과 1명(10:00-12:00)
- 4과 1명(12:30-1:30)
- 문의: 감목회 집사(019-437-5698)

임양가족 초청
민박을 원하는 가정 신청바랍니다

교회는 해외 임양이 임 양가족을 초청하고 하여 민가 가족을 신청 받습니다. 임양이 머무는 기간은 7월7일(토) 오후 3시에서 다음날인 8월1일(토) 14시20분입니다. 초청 가족은 20가정으로 54명입니다.
민박을 원하는 가정은 선교회원회(각 교구 교역자를 통하여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선교회원회(350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연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연도지
546	안명주	4	바울	오귀봉(4)	554	이준성	9	대학부	
547	이지연	4	에스더	오귀봉(4)	555	윤성희	9	고동부	이윤형(9)
548	허태진	4	청년1부	장기범(4)	556	황은정	9	고동부	이정민(19)
549	지승은	14	에스더	이종철(1)	557	장미란	9	고동부	김은영(6)
550	김영숙	14	루디아	이호일(15)	558	최금순	12	루디아	최하영(12)
551	정옥갑	15	소방부	유정호(15)	559	박미영	9	대학부	임우도(16)
552	심정미	19	청년2부	이향숙(11)	560	김연미	19	청년1부	
553	노영주	19	청년1부	윤혜단(2)	561	최희윤	19	대학부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0(다)요일(예배)	본당
V	오전 10:00(다)요일(예배)	본당
안 수 집 회	오전 5:00	본당
수 요 회	오전 10:00 (다)요일 7:30	본당
금 요 회	오전 7:30	본당
세 끼 기도회	오전 5:00	본당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김희철 조순진 김은호 노광현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오진국 이병학 윤원진 최대현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임원성 강요호 오정현 이 훈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남상우 서동식 정은수 김영길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문준우 조인재 김규구 최무길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김진재 이창호 차순진 김재명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박영식 김광남 이종식 윤성철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이희영 박인건 김인관 이병욱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안종욱 최무현 임원진 이종섭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최기홍 이갑재 진종용 전종훈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이정우 김단용 황형일 손 철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김규성 김영수 정홍식 신동기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신종철 이희수 안현진 황의만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김구형 최원덕 이계인 박다영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이태식 장대부 박준우 권명우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조종환 배준식 김경달 이신호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박진섭 최성현

■ 부목사

-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차병준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김병태 서영진 정혜성 이준경 박인기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이성기 류병태 노동욱 이종철 김영훈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이국진 김교성 송기환 이수근 이우진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안창덕 방영웅 나경원 정진호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선교사

- 장은희 권영일 최은아 권요섭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이희영 김시영 정현주

■ 협력선교사

- 허요섭 (이종대) 김기영 (이종대)

■ 찬양감독

- 김기영 김기영

■ 예전도사

- 정연희 김경자 송향자 신동자 윤순익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김옥용 한영준 김성희 홍순애 이옥주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김정자 강영희 최희성 백명자 김정현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조옥자 강영희 김성희 백명자 김정현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신교회장

■ 교정전도사 박영덕